



섬과 섬을 잇는 새 길로 바다를 달리다



잠진-무의 연도교 개통

잠진도와 무의도를 잇는 잠진-무의 연도교가 개통했습니다.
인천 도심에서 영종도를 지나 무의도까지 달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05

MAY 2019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05

2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굿모닝인천



COVER STORY
'비움으로 채우다' - 전등사 대웅전 앞에서 나눔 스님
표지 사진: 류창현



자고 일어나니
사라진,

‘꿈’동산

‘가족과 함께하는 수봉 놀이동산’이라고 쓰인 무지개 모양 입구를 지금도 기억한다. 1980년대 이맘때면, 엄마 아빠 손잡고 소풍 온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다람쥐 통, 회전그네, 허니문 카…。 대단한 놀이기구는 아니지만 단돈 몇 백원만 내면 줄 서지 않고 탈 수 있으니, 어른도 아이도 모두 신이 났다. 하지만 2008년 7월, 수봉 놀이동산 대관람차가 창공에 그대로 멈췄다. 주민 1만여 명이 추억을 ‘사수’하기 위해 이름을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30년을 함께해 온 ‘우리들의 놀이동산’은 그렇게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대관람차를 타고 공중으로 높이 솟으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겁 없이’ 다람쥐 통에 올라타 동전을 와르르 쏟아내고 멀미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날이 추억이 되고 그리움으로 남을 줄, 그때는 몰랐다. 꿈처럼 사라진 유년의 기억이, 눈부신 오월의 햇살 아래 아련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1979년 6월 14일 수봉 놀이동산 준공식 때의 모습이다. 수봉 놀이동산은 1980년대 월미도, 송도유원지와 함께 가족 나들이처로 사랑받았다. 놀이동산을 허문 자리엔 현대식 물놀이 시설을 갖춘 작은 놀이터가 들어섰다.

CONTENTS



04 인천 미소
인천을 알려주는 친절한 길잡이 外

05 미디어&스토리
영화 관람 문화를 바꾼 쿠키 영상

06 포토 에세이
오월의 산사

08 커버스토리·사람과 공간
⑤ 전등사 ‘비움의 공간’

12 화보
오월 풍경

18 인천의 미래
인천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2 당신이 잠든 사이에
부평우체국 물류센터

26 살고 싶은 도시
⑤ 일본 오사카

30 오월의 맛
산사의 밥상

34 시민 시장
강화도 농민 심상점

36 내가 사랑하는 인천
아! 나의 망루 인천

38 문화 포커스
인천도시역사관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전

40 문화 캘린더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外

42 문화 공연
5월 어린이날 행사

44 이미지 뉴스
해안 철책

46 시정 뉴스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 外

50 의회 뉴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外

52 드로잉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54 인포 박스
2019년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 外

58 인천의 아침
한국 영화 상영 100주년과 인천

59 인천사진관
오용하 씨 가족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을 알려주는 친절한 길잡이

인천 시민이 된지 6개월째입니다. 새내기 인천 시민에게 <굿모닝인천>은 인천을 알려 주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흥미로운 문화 행사부터 진솔한 삶의 이야기까지,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인천에 새롭게 둥지를 튼 시민들의 삶에 도움 되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 유현진 부평구 이규보로

새롭게 도약할 인천의 내일을 기대하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 소식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크루즈 여행을 인천에서 즐기게 됐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4월 26일 개장에 맞춰 성대한 불꽃 축제도 열린다는데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인천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 정해중 중구 인종로

시민 참여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길

인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굿모닝인천>을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컬러링 이벤트와 함께 퀴즈나 독자 마당 등 시민 참여 이벤트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구별 특집 기사도 게재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굿모닝인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박은진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인천을 꿈꾸며

‘살고 싶은 도시’ 기사를 보며 덴마크 코펜하겐이 자전거 천국이라 불릴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중심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천도 코펜하겐처럼 자전거를 타기 편리한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을 독려해 자전거 타기 좋은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이봉근 남동구 석산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영화 관람 문화를 바꾼 쿠키 영상

글 장훈 시 미디어담당관

영상을 업(業)으로 하는 친구가 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에게 영화의 끝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스크린이 꺼지는 그 순간이다. 엔딩 테마곡을 만든 작곡가에게도,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수많은 스태프와 후원자들에게도 동업자로서 예를 지키겠다는 것이 그의 뜻이다.

실제로 엔딩 크레딧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주는 관객은 흔치 않다. 그런 그들을 끝까지 자리에 머물게 한 영화가 있다. 바로 마블 시리즈이다. 마블 영화에는 엔딩 크레딧을 전후해 두세 개의 쿠키 영상이 들어간다. 이어지는 다음 편 혹은 마블의 다른 영화의 내용을 암시하는 단초가 들어 있다.

마블의 쿠키 영상은 영화관의 풍경을 바꿨다. 아이들이 먼저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며 부모를 잡아 앉게 한다. 그중 몇몇은 스태프와 후원사들의 이름을 읽어보기도 한다. 홍보를 하는 관점에서 꽤 의미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고객들이 꼭 보았으면 좋겠지만, 주목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느냐의 해답이 여기에 있어 보인다.

물론 조건이 있다. 먼저 킬러 콘텐츠의 존재이다. 본편이 재미있어야 속편을 기다리는 법이다. 그리고 속편이 기대되어야 예고 쿠키 영상도 보게 된다. 마블 영화의 재미는 그 흥행에서 입증된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그 재미있는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그 이름들일 것이다. 그들을 존중할 때 영화는 더 나아진다. 마블이 그 평범한 상식을 잊지 않고, 쿠키 영상을 통해 보답한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본다. 그러한 마블의 철학이 좋은 본편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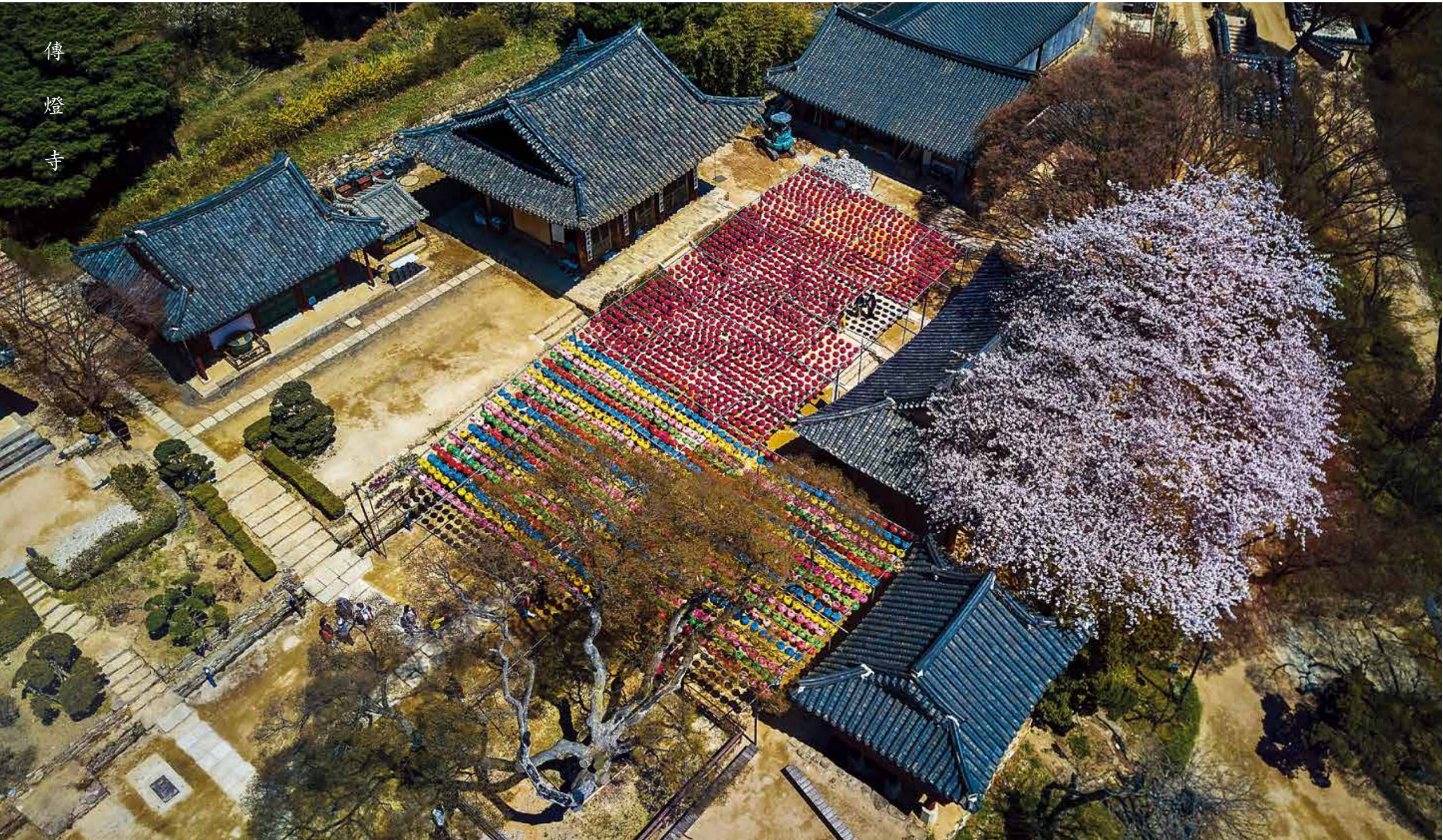
두 번째, 시선을 끌어당기는 쿠키 영상 그 자체다. 짧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쿠키 영상은 극장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상과 이야깃거리를 준다. 성급하게 먼저 나온 관객들에게는 후회와 함께 ‘다음엔 꼭 보고 나와야지’하는 다짐을 준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속도로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과 음악의 효과이다. 눈을 어지럽히지 않는,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지도 않은 속도로 관객들에게 쿠키 영상을 기다리게 하는 실력이 남다르다. 엔딩 크레딧 영상은 글자도 영화이다.



공공 홍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시선을 끌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재미만을 추구하면 공공성의 의미가 사라진다. 결국 알리고 싶은 것을 목표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홍보라면, 마블의 쿠키 영상 전략은 좋은 공부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 특히 홍보의 기본인 내부 고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은 훈훈함까지 더해준다. 세상에 이유 없는 최고는 없는 법이다.

傳
燈
寺



천
년

고^古
찰^刹

깊고
그윽하여라

문득 일상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산사로 향하자. 불자가 아니어도 좋다. 마음의 위안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품에 안으니, 예서라면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다.

강화도 정족산(鼎足山)의 품에 안긴 전등사(傳燈寺)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이 절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 11년(3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승려인 아도화상(阿道和尚)은 정족산의 맑은 기운과 그윽한 운치에 이끌려 진종사(眞宗寺)를 창건했다. 지금의 이름을 가진 건 고려 충렬왕(忠烈王)의 비인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절에 순백의 옥으로 만든 등잔을 시주하면서부터다. 그 빛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드론 촬영 류창현 포토디렉터



약사전(藥師殿) 마당을 거니는 남룡 스님.
매일 마음의 도량을 닦으며 ‘비움으로써 채운다’.

비움으로

채우다

充滿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천을 본다. 공간(空間)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다. 비어 있기에 충만한, 강화도 전등사(傳燈寺) 남룡 스님의 선방(禪房)에 잠시 머물렀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스님이 손수 그린 반가사유상.
막상 시작하면 금방 그림을 그리지만,
마음을 잡고 준비하는 데는 며칠이 걸린다.
‘쉽게 가볍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목탄 문은 손끝으로부터 얻는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봄꽃이 둥둥 떠다니는구나.”
봄물이 한창 오른 요즘, 스님은 창문을 열고
세상 만물과 인사를 나눈다.

종교를 통해 정도(正道)를 걷는 건,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내가
진실해지고 선량해지고 지혜로워지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도 매
량 일,
을
닦
는
마
음



‘똑똑 포르르륵, 똑똑 포르르륵...’ 새벽 4시 30분 강화도 전등사, 봄바람에 실려 온 목탁 소리가 산사를 깨운다. 은연히 흔들리는 풍경 소리. 부슬부슬 내리던 이슬비도 소리를 낮춘다. 새벽빛이 부영계 밝아울 무렵, 예불을 마친 스님이 짜리비로 도량(道場) 마당을 쓴다. 정결하게 비질을 해도 그때뿐,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땅은 금세 흐트러진다. 그래도 스님은 매일같이 길을 닦는다.
전등사(傳燈寺)의 포교국장 남룡(42) 스님은 한때 ‘어떻게 해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고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도량을 닦으면서 그 해답을 얻었다. “진정한 행복은 도량을 깨끗이 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길이 더러워질 때마다 기꺼이 비질을 하는 마음에 있지요.” 한 번의 비질로 형클어진 마음을 정갈히 할 수는 없는 법. 비바람에 뭉그러지고 못발길에 밟히더라도 매일 쓸고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원하는 바에 이르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삶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오월, 연등이
산사의 하늘에
꽃처럼 피었다.



‘그림이 있는 법당’
무설전(無說殿)은,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이다.

여
나
정
를
찾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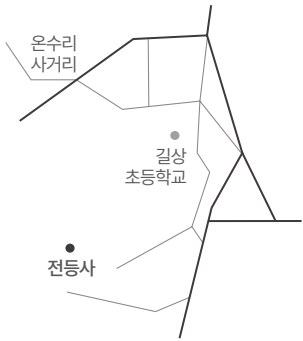
아침 9시, 템플스테이 수행관 선불장(選佛場). 남룡 스님이 봄물 가득 머금은 찻잎을 우려 건네며,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는다. 스님은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불경을 읊었다. 출가를 생각한 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다. ‘평범한 삶을 살지, 출가할지, 절에 가면 큰스님이 될 수 있을지...’ 살면서 가장 큰 번뇌에 휩싸였다. “출가하면 3개월 안에 다시 속세로 나오게 될 것이야.” 세속의 인연을 버리기 몇 달 전, 우연히 찾은 사주카페에서 들은 점괘가 한동안 마음을 어지럽혔다. 이후로도 수행의 길은 쉽지 않았다. 밤낮으로 선방(禪房)에 틀어박혀 참선해도 마음이 허기지고 공허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통을 견뎌내며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다. “수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행을 하는 마음가짐, 그 출발점부터 틀렸던 거지요. 훗날 수행은 나를 발견해 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들꽃은 비옥한 토양에 씨를 뿌리든 척박한 바위틈에 뿌리내리든, 자기 몫을 다해 피고 진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곧 수행이다.

텅
빈
충
만

선불장에서 나와 경내를 천천히 거닌다. 다사한 햇살 사이로 대웅전(大雄殿)이 모습을 드러낸다. 보물 제178호인 이 건축물은 광해군 13년(1621)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봄기운 때문일까. 팔작지붕 네 귀퉁이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裸婦像)이 힘겹기보다 편안해 보인다. 대웅전을 지은 도편수는 자신을 떠난 여인을 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깎았으리라. 고요한 산사, 처마 끝 풍경 소리가 한가롭다. 스님께서 참선하는 방에 가 봐도 되느냐, 조심스레 물었다.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먹고 자고 머무르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다. 스님께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문을 열어주셨다. 문 앞에 ‘지혜(智慧)’라는 글귀가 새겨진 아담한 방. 세간이라곤 작은 나무 책상, 의자, 책 몇 권이 전부다. 방에 난 창 밖으로는 신록이 돌아나는 아침이 열리고 낙엽 지는 오후가 펼쳐진다. 스님은 종종 그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내려놓는다. “‘텅 빈 충만’, 사찰은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집착과 욕심,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차오르지요.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내 안으로 움직입니다.”

늦은 오후, 스님의 선방을 나선다. 500살 나이를 먹은 은행나무를 돌아 도량을 지나 바람이 선들선들 부는 산 아래쪽으로 걷는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솟아오른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둑어둑한 처마 밑에서 흘러나오는 목탁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천년 고찰 전등사는 대웅전(보물 제178호)과 약사전(보물 제179호), 범종(보물 제393호) 등 귀한 보물을 품고 있다. 사진은 대웅전 지붕을 떠받치는 나부상.





완주읍

골목 벽화

색즉시공
色 即 是 空

푹푹한 청춘의 '생일'은 계속될 수 없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 립스틱... 구불구불한 골목에 색조 화장을 한 벽화가 길게 이어진다. 어쩔 수 없이 마을은 늙는다. 잡티로 거뭇해진 낡은 담벼락에 붓 터치를 한다. 다크서클 같은 어두운 골목에 색이 들어오면 마을 곳곳에 빛이 든다. 10여 년 전,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길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젊은이들이 붓을 들고 계단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천 벽화 운동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글사진 유동현 전 <굿모닝인천> 편집장



아미

주안동



부평동



십정동

송의동



청학동



송림동



경동
십정동



만석동



벽화 그려진 골목은 노천 갤러리다. 담벼락에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동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지나온 세월 이야기를 건넌다. 별별색색 형형색색으로 벽화를 치장했다 해도 동네가 없어지면 벽화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결국 한시적인 작품이다. 아무리 화려한 색 일지라도 결국은 비워진다. 색은 곧 사라진다. 모두 일시적인 모습일 뿐 그 실체는 없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도화동
화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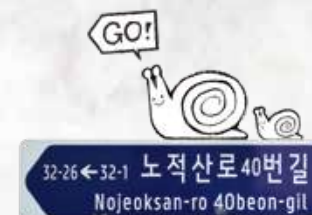
송의동
송림동

호미마을



문학산의 한 줄기인 노적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다. 얼마 전 이 마을은 ‘호미마을’이란 예쁜 이름을 얻었다. 낡은 골목과 지저분한 빈터를 호미질해서 새롭게 생기를 넣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호미질은 벽화 그리기로 시작했다. 주로 미술 봉사자의 손길이 닿았지만 주민들의 손도 함께 보탬다. 주민들은 함께 모여 조각 그림을 그린 후 담장에 퍼즐 맞추듯 채워갔다. 이제 호미마을은 색깔 있는 동네가 됐다.

이전의 마을 모습





귀한 땀 스민 손이, 곧 미래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무수한 기사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물론이고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화한 6차 산업이라는 명칭까지 나올 만큼 세상은 하루하루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분야도 많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기술을 익히는 젊은 미래들이 있다. 인천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을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해 온 ‘기능경기대회’

기술·기능인의 축제인 인천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인천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36개 직종에 288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인 결과 금메달 38명, 은메달 37명, 동메달 37명, 우수상 19명으로 총 131명이 입상했고,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됐다. 또 대회 1, 2, 3위 입상자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대회 상위 입상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선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뿌리산업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달해야 한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계, 장비와 씨름하고 땀 흘리면서 자신의 밝은 미래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의 인재다. 기능경기대회 출신 우수 선수들에 대한 우대와 채용의 길이 점차 넓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호기심과 열정으로 키운 꿈 용접 부문 출전 여고생

용접 마스크 뒤에 하얗고 앓된 얼굴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번 인천기능경기대회 용접 부문에서 우수상을 거머쥔 이수연(18) 학생. 해사고등학교 3학년인 그녀가 남자들도 체력적으로 힘든 용접 작업에 빠져든 데는 학교 동아리 실습실에서 용접봉을 잡고 불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서다.

“저희 학교는 항해사와 기관사를 육성하는 고등학교예요. 용접이나 전기 관련 부문이 선박을 운영하는 기관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접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기능경기대회에 도전해 보라고 지원해 주었다. 대회를 앞두고 다리를 다쳐서 깁스까지 해야 했지만, 17시간 동안의 작업을 모두 마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그녀는 함께 용접을 공부했던 학교 친구들이 모두 입상해서 더욱 기뻐다.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용접에 매달렸는데, 이제 주말에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허전해요. 다시 또 새로운 뭔가에 도전해 보려고요.” 기관사가 되기 위해 해사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요즘엔 또 해양경찰관이 자꾸 멋있어 보인다는 꿈 많은 그.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그의 도전이 기대된다.



해사고등학교 3학년 이수연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꿈
대를 잇는 기술인 가족

도립고등학교 3학년 박동화



나무를 파내고 다른 나무를 끼워 맞추는
상감 기법으로 난초를 표현한 찻상.



“어릴 때부터 블록, 종이접기 같은 걸 좋아했어요. 주변에서 손재주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목공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나무 만지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에 폭 빠져 지내다 보니,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기쁘다는 박동화(18)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을 땀다.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썩 내키지 않아 하셨어요. 진로를 선택하는 쪽이 좁아지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셨죠. 하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아시고는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어요.”

도립고등학교에 우드공예 동아리를 만들어 3년 내내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고, 도서관을 통해 재능 기부까지 해온 그는 전국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국의 고수들이 모이는 대회잖아요. 전국대회 입상이 목표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력을 눈으로 보면서 배울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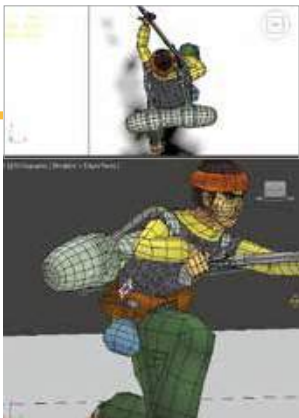
산업 현장 교수가 꿈이라는 그의 올해 목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부분의 일을 기계가 한다고 하지만, 문화재 복원·보수는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지 않겠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용기
다문화 출전 선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은메달을 따낸 피우방 마타나폰(18) 학생은 태국 출신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 온 그는 한국말이 서툴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중학교 시절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한다. 점점 소심해졌던 그는 홀로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게 됐고,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작가에 대한 꿈을 꾸게 됐다.

꿈을 이루기 위해 금융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과를 진학한 그녀는 무엇보다 학교 친구들을 큰 재산으로 꼽는다. “애니메이션 작업은 각 파트별로 분업해서 완성하는 일인데, 대회에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거든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친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줘서 이번 대회에서 많은 힘이 됐어요.”

은메달을 땀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지만, 국적이 태국이라 전국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단다. 현재 금융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질의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같은 분야에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융고등학교 3학년 피우방 마타나폰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어렵고 힘든 일보다는 쉽고 편한 일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계, 장비와 씨름하고 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꿈을 위해 기능경기대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
1분 1초의 싸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아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있다. 클릭 한번만으로도 원하는 물건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생활. 하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 밤마다 시간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힘들고 고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을 알기에, 부평우체국 물류센터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끝없이 들어오는 차량과 차곡차곡 쌓이는 박스들.

물류센터로 몰려드는 차량과 택배 물량

PM
07:00

부평우체국 내 물류센터. 오후 7시가 되자, 택배 물류를 실은 차량이 줄지어 들어온다. 어느새 차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배송 차량에는 택배 물건이 가득 담긴 롤테이너(바퀴 달린 이동식 적재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차량에서 롤테이너를 내리는 손길이 몹시 분주해진다. 롤테이너는 바퀴가 달려 있어도 위낙 많은 짐이 실려 있어 사람이 옮기기에 버거워 보인다. “롤테이너 무게만 100kg 정도 됩니다. 물건을 가득 채우면 200kg은 거뜰히 넘죠.” 이상일 소포물류 실장은 부평우체국 물류센터 하루 물량이 평균 27만 건 정도, 명절에는 하루 평균 35만건 까지 몰려든다고 설명한다. 부평우체국 물류센터는 강화와 도서 지역을 포함한 인천 전 지역과 부천, 시흥, 서울 강서, 김포 지역의 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롤테이너에 실린 짐들을 차량에서 내리면서 바로 컨베이어 벨트에 하나씩 올린다. 밀려든 차량들이 내려놓은 물건으로 가득 찬 물류센터. 오늘밤, 이 물건들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다시 차량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1분이라도 지체하면 배송은 몇 배로 늦어진다.

단순하지만 체력 소모가 많은 ‘극한 작업’

PM
08:00

컨베이어 벨트에 배송품을 올려놓는 작업은 단순한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아무렇게나 올려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물건과 기계가 처리할 수 없는 물건을 구분해서 실어야 합니다. 또 기계가 배송품을 인식할 수 있게, 바코드가 하늘을 향하도록 올려놓아야 합니다.” 정경초 소포물류 팀장은 빠른 속도로 물건을 반복해서 올리는 일은 체력 소모가 상당한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소포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인다. 기계의 도움 없이는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 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기계에 올라간 소포는 지역별로 자동 분류된다. 판독 장비가 소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고 행선지별로 자동 구분한다. 시간당 1만3,000여 건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는데, 기계의 도움 덕에 예전보다 전체 처리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기계가 바코드를 못 읽으면 다시 찍어줘야 해요. 바코드가 손상됐거나 오류가 나면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바코드를 찍거나 직접 손으로 번호를 입력해서 구분해야 한다. 또 기계가 처리하기에 너무 큰 물건이나 반대로 너무 작은 물건, 비닐 포장의 옷 같은 상품은 모두 사람이 직접 분류해야 한다.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계가 분류하지 못하는 상품은 사람 손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꼭예하듯 짐을 쌓아올리는 기술이 관건

PM
09:00

파란색 미끄럼틀에서는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류된 물건들이 끊임없이 내려온다. 이제 무거운 물건들을 쌓아야 할 시간이다.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택배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물건을 쌓는 담당자에게 도착한다. 택배를 주소지에 따라 분류한 다음 평팔레트(Pallet)라 불리는 판자 위에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무게와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비닐에 든 가벼운 것부터 쌀처럼 20kg이 넘어가는 것도 있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사람 손이 모자랄 때가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물량은 넘쳐나 보기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

박스를 쌓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가로세로 1m 정사각형의 평팔레트에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쌓기 때문에 박스 크기와 무게를 고려해서 상자를 배치해야 한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 박스를 차곡차곡 빈틈없이 꿰맞춰가며 쌓아올린다. 기울거나 무너지지 않게 높이 쌓아올리는 것이 기술이라고 한다. 같은 지역끼리 선별해서 켜켜이 쌓아올린 짐들은 이동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램프로 감싼다. 하나의 팔레트에 담긴 물건들은 같은 지역으로 옮겨진다. 각 지역별 운송 차량으로 이동해 실는 과정은 힘도 들지만, 무엇보다 머리를 써야 한다. 배달해야 하는 물건들을 모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 확보가 중요해요.” 한 묶음으로 덩어리가 커진 터라 빈틈없이 실기가 만만치 않다.



램을 들고 빠른 시곱바늘처럼 돌아 켜켜이 쌓아올린 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땀을 닦을 새 없이, 밤새 반복되는 작업

PM
10:30~

부평우체국 물류센터는 각 우체국에서 접수한 소포를 각 지역별로 분류하는 첫 출발점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우편물은 늦어도 밤 11시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야 한다. 약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 뒤, 자정부터는 지방에서 인천으로 도착한 물건의 배분 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분 작업은 밤새 진행되어 아침 7시 쯤 끝나는데, 상하차가 마비되면 모든 작업 과정이 막히기 때문에 신속 정확,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분주한 손길은 멈출 수가 없다. 모든 작업은 거의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반복된다.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시간과의 싸움은 계속된다.

“택배는 거의 인해전술이라고 봐야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장비와 사람이 많으면 해결되는 일거든요. 요즘엔 해외 직구 물량도 많은데, 인천국제공항 국제물류센터에서 오는 것이 하루 8만 건 정도 됩니다.” 이외에 중국에서 배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쉴 새 없이 몰려오는 택배의 파도,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고,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 안 되는 작업이 밤새 반복된다. 누군가의 치열한 밤이 있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원하는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택배를 받는 기쁨보다는 고마움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깊은 밤이다. “물랐습니다. 그저 편하게 받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당신들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맙습니다.”

보내시는 분

택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 1. 주소는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가 1~2일 더 소요됩니다.
- 2. 소포는 튼튼하게 포장해 주세요.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꼼꼼한 포장은 필수!
특히 식품은 더 신경 써 포장해 주세요.
- 3. 조금만 여유를 가져주세요.
가능하면 익일 배송을 하지만 명절 연휴나 공휴일 다음 날, 월요일에는 택배 물량이 넘쳐난답니다.
- 4. 소포에는 절대 귀중품을 넣지 말아주세요.
분실이 걱정되면 안심 소포를 이용해 보세요.



AM
07:00

SERIES 5.

JAPAN OSAKA

일본 혼슈 세토나이카이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 | 면적 223km² | 인구 271만6,989명(2018년 기준)인천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 ——
세계가 인정한 ‘살고 싶은’ 도시 탐방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세계가 오사카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 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시지다. 시민 참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다섯 번째는 영국의 정치·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선정한 ‘2018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10’에 이름을 올린 일본 오사카(Osaka)다.

글 김선희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연구 교수 | 사진 셔터스톡

‘천하의 부엌’으로 불리는 사통팔달 경제 도시

일본 정부 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753만9,000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은 곳은 서 일본의 중심지인 ‘오사카’다. 오사카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이며 방문 관광객만 연간 1,000만 명을 웃돈다. 국내외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오사카의 매력은 무엇일까. 오래 전부터 ‘천하의 부엌’이라 불리며 굴지의 경제 도시로 성장했던 오사카는 일본의 근대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현재까지도 일본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다. 그 원동력은 바로 발군의 접근성이다. 이 점은 연간 1,000만 명을 웃도는 사람들이 오사카를 찾는 커다란 매력 중 하나이기도 하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간사이국제공항은 오사카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전 세계 24개국, 82개의 도시를 잇고 있다. 한국에서도 김포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부산, 대구, 청주, 무안, 제주와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증가로 접근성은 더욱 좋아졌다. 더욱이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 중심지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또한 장거리 야간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 신칸센, JR, 사철(私鐵)이 나라(奈良), 교토(京都), 고베(神戸) 등 오사카 주변 도시까지 촘촘히 연결하고 있어 지역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을 더 오래 머물게 한다.

도톤보리(Dotonbori) 거리(위)
간사이국제공항의 JR(아래)



일본인 듯 일본 아닌 일본 같은 도시

오사카는 교육과 의료 및 여가 시설 확충, 거주 비용과 통근 혼잡을 제고 등 지역민의 만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오사카의 전입 인구는 늘고 있는 이유다. 지역민이 살기 좋은 곳은 관광객에게도 신선한 매력을 제공한다. 살기 좋다는 말은 단순히 편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도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상업 도시 오사카는 에도(현 도쿄)와 종종 라이벌 관계로 묘사되는데, 오사카 사투리를 표준어라고 할 만큼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공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듯이, 오사카 사람들은 여유롭고 유머러스한 상인 기질이 강하다. 일본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진다. 보통 일본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를 보면 대부분 공통되는 것이 예의와 친절, 청결이다. 그중 ‘친절’을 척도로 삼는다면 오사카 사람들은 단연 으뜸이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웃과의 소통 부재라는 점을 떠올리면, 오사카 사람들의 압도적 친화력과 다양함에 대한 포용력이야말로 일본이면서 일본 같지 않은 오사카의 매력을 가장 잘 느끼게 하는 근원이다.

먹다가 쓰러져도 꼭 봐야 할 관광 자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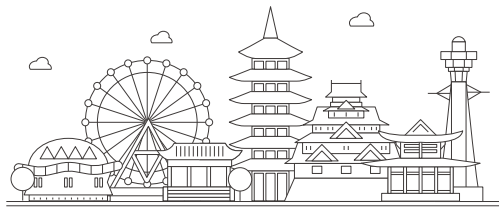
오사카는 오사카성을 비롯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전통인형극 분라쿠(文樂),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세계 최대 규모의 수족관 가이유칸(海遊館) 등 역사적·문화적 관광 자원이 가득하다. 또한 ‘먹다가 쓰러지는 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식문화가 발전해 넉넉한 인심의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쇼핑도 마찬가지. 전체 길이가 2.6km로 일본에서 가장 긴 덴진바시스시(天神橋筋) 상점가에는 약 600여 개의 점포가 성업 중인데,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이곳은 저렴한 의류와 잡화를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오사카의 옛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은 오감이 즐거운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2014년 문을 연 ‘아베노하루카스’는 높이 300m, 연면적 21만2,000㎡의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 시설로, 호텔, 미술관, 백화점, 오피스, 옥외 정원으로 구성되며, 일본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는 오사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민관이 의기투합한 ‘오사카 뮤지엄’ 구상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다양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도시의 매력은 달라진다. 오사카시는 약 10년 전부터 도시의 매력을 극대화해 세계적인 문화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박물관으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권역별로 오사카성 지구는 세계적 관광 거점으로, 나카노시마(中之島) 지구는 문화 예술 거점으로, 덴노지(天王寺)와 아베노(阿倍野) 지구는 도시 공원 거점으로, 미도스지(御堂筋) 지구는 도시의 심벌 스트리트로 재창조해 도시의 매력 자원을 100% 활용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오사카 관광국을 별도로 설치, 관광객의 재방문을 향상과 국제회의 또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컵누들 뮤지엄 오사카 이케다(Osaka Ikeda Cupnoodles Museum)의 전시관(위) 클래식 카가 가득한 오사카 지라이온 뮤지엄(Glion Museum)(아래)



인천은 ‘미추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고대부터 개항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근대를 열었다. 또한 굴지의 공업 도시로 경제를 이끈 현대까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만큼 역사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서해의 아름다운 섬을 포함한 자연경관 자원도 다채롭다. 또한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서의 뛰어난 지리적 이점은 인천의 대표적인 경쟁력이다. 남은 것은 이러한 인천만의 역사적 가치와 인프라를 심본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다.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인천만의 랜드마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인천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창구 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려 권역별로 개성을 발전·특화시킨다면 관광지로서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아시아 허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김치

한 보시기의
미덕

여법如法 : 이치에 합당함, 정결淨潔 : 깨끗하고 깔끔함, 경연輕軟 : 가볍고 부드러움. 사찰음식의 세 가지 미덕이다. 만드는 것도 취하는 것도, 몸과 마음을 채우면서 비우는 ‘수행’의 과정. 그저 제철 재료로 소박하게 빚어내지만, 자연 그대로 깊은 맛을 낸다. 전등사를 품은 정족산 기슭에 차린 오월, 산사의 밥상.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 요리 대안 스님



대안 스님의 ‘식탁 위 명상’

“‘먹방’이 화면을 채우는 순간, 먹고 싶다는 의지가 강렬해 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넘치는 음식과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지요. 하지만 산사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맞춰 밥상을 차리니, 마음을 바로 세우고 몸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 스님은 지난해 가을부터 매주 강화도 전등사에서 요리 강좌를 열고 있다. 음식을 바로 대하고 정성스레 만드는 것이 곧 수행의 과정. 제철에 난 좋은 재료로 자연의 맛과 향을 전하는 사찰음식의 비법을 전수한다. 대안 스님은 지리산 금수암의 주지로, ‘금당 사찰음식문화원’의 원장이기도 하다. KBS 인간극장 ‘스님의 밥상’ 편에 출연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열두 달 절집 밥상>, <식탁 위의 명상> 등이 있다.

사찰음식 강좌 문의 : 전등사 종무소 ☎ 032-937-0125



총각김치

그저 김치 한 보시기인데도 밥상이 풍성해진다. 사찰에서는 김치에 젓갈과 오신채(五辛菜 : 마늘·파·부추·달래·홍거 등 자극적인 다섯 가지 채소류)를 넣지 않고 전통 장으로 발효시킨다. 그래서 맛이 정갈하면서도 깊다. 지금은 총각무가 아삭하고 맛이 실할 때다. 고슬고슬 갓 지은 밥에 잘 익은 총각김치를 척 얹어 먹으면, 밥 한 그릇이 뚝딱 빈다.

여법



재료

총각무 1단, 굵은소금 1/2C, 마른 표고버섯 4개, 다시마 4장
김치 양념(배 1/4개, 마른 고추 5개, 밥 1/2컵, 생강 1쪽, 집간장 1/4C, 고춧가루 1C)

만들기

- 1 — 총각무 뿌리는 껍질을 벗겨 큰 것은 4조각, 작은 것은 2조각으로 자른다. 무청은 뿌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2 — 무에 굵은소금을 뿌려 1시간 동안 절인 뒤 맑은 물에 두 번 정도 행구고, 채반에 담아 물기를 뺀다.
- 3 — 마른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끓여 맛국물을 준비한다.
- 4 — 마른 고추를 깨끗이 씻어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믹서에 배·밥·생강·집간장과 함께 넣고 간 뒤 고춧가루를 섞는다.
- 5 — 양념에 무청을 가지런히 모아서 큰 그릇에 담는다. 무에 양념을 문지르면서 바른다.
- 6 — 무 2~3개를 한 손으로 잡고 무청으로 무를 돌돌 말아서 용기에 차곡차곡 담는다.

양배추말이찜

봄철 양배추는 조직이 연하고 아삭한 식감이 딱 알맞다. 양배추를 부드럽게 찌내 단맛을 은근히 살리고, 깻잎과 미나리로 싱그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두부와 버섯으로 산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채우고 씹는 맛도 살렸다. 자연을 담은 담박한 맛에, 자극에 길들여져 무더진 혀와 몸이 확 깨어난다.



淨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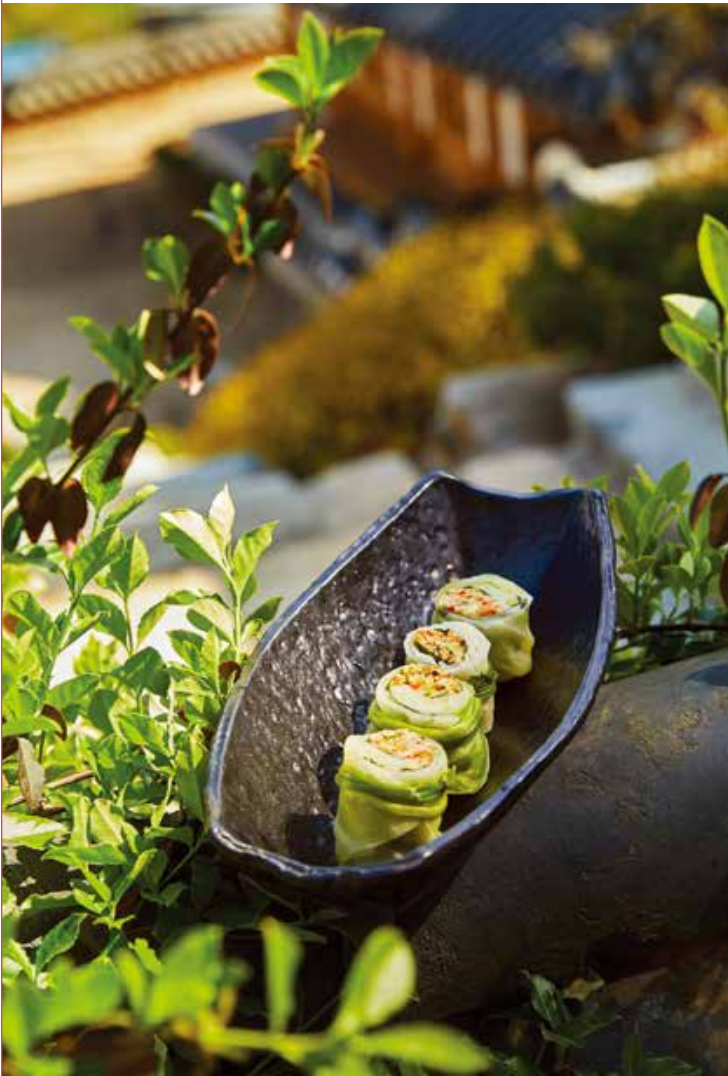
정결

재료

양배추 잎 4~6장, 두부 1/2모, 감자 1개, 마른 표고버섯 3개, 당근 50g, 청·홍고추 1개씩, 오이 1/2개, 깻잎 10장, 미나리대 20개, 참기름·집간장·소금 적당량씩

만들기

- 1 — 양배추는 부드럽게 찢다.
- 2 — 두부는 끓는 물에 데친 후 베보자기에 넣어 물기를 제거하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밀간해서 볶는다.
- 3 — 감자는 찌서 뜨거울 때 으갠 후 소금으로 간을 한다.
- 4 — 마른 표고버섯은 불린 후 다져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밀간해서 볶는다.
- 5 — 당근은 다져 볶은 후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한다.
- 6 — 청·홍고추는 잘게 다진다.
- 7 — 오이는 다져 소금을 넣고 간한 후 물기를 찢다.
- 8 — 깻잎은 씻어 물기를 뺀다. 미나리는 대를 삶아 묽음용으로 쓴다.
- 9 — 두부·감자·표고버섯·당근·청고추·홍고추·오이를 섞어 속을 준비한다. 양배추를 펴고 깻잎을 깔 다음 속 재료를 뭉쳐 올리고 잘 말아 미나리로 묶는다.
- 10 — 김이 오른 찜솥에 살짝 찢다.



원추리감자초회

얇은 껍질 속 뽀얀 햇감자가 어여뻐 보이는 요즘이다. 포슬포슬 찢 감자에 양념장을 술술 버무려 새콤달콤한 맛을 살린다. 여기에 부드럽고 매끄러운 원추리 새순을 나물로 조물조물 무쳐낸다. 원추리라는 이름은 ‘시름을 잊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이 봄 사찰음식으로, 겨우내 쌓인 묵직한 기운을 산뜻하게 날려버리자.

재료

감자(중) 2개, 원추리 80g, 당근 80g, 홍고추 1개, 소금 약간, 참기름 1/2t
초장(고추장 1T, 고춧가루 1/2T, 집간장 1/2T, 조청 1T, 2배 식초 1T, 통깨 1/2T)



輕軟

경연

만들기

- 1 — 냄비에 고추장·고춧가루·집간장·조청·물 1T을 넣고 끓여 식힌 다음 식초, 통깨를 넣는다.
- 2 — 감자는 깨끗이 씻어 소금을 넣고 찜기에 찌서 한입 크기로 썬다.
- 3 — 원추리는 손질해 데쳐서 물기를 찢다.
- 4 — 당근과 홍고추는 곱게 채 썬다.
- 5 — 준비한 재료를 미리 만들어놓은 초장으로 버무린 다음 참기름 1/2t을 넣고 고루 섞어 접시에 담는다.



“문제 없으시겨?” 강화도 선두리의 ‘농민 맥가이버’

강화도 농민 심상점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농촌은 특히
더불어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그렇지만.

시
민
시
장
-
심
상
점



봄 햇살이 내려앉은 대지가 부풀어 오른다. 너른 발을 휘휘 둘러 보는 농군의 얼굴에 목련처럼 하얀 미소가 피어난다. 툭 툭 툭 툭, 경운기가 지나간 길에 물결 같은 이랑이 생겼다. 먹거리를 내어 주는 생명의 흙 물결이다. 그렇게 땅은 사람을, 사람은 땅을 받아 들이며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 된다. 강화도는 지금 파종의 계절. 5월 중순까지 ‘속노랑고구마’와 ‘순무’를 심고 나면 곧 모내기가 시작될 것이다. 강화도의 산에 들에, 농민 심상점(62) 씨의 가슴에도 봄이 찾아들었다.

“농부들에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수확철을 기다리며 희망을 심는 철이거든요. 잘 보살핀 농작물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 자식들이 무럭무럭 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발을 바라보는 심 씨의 눈길이 봄벌처럼 느슨해진다. 지금은 논밭을 일구지만, 그는 본래 돼지를 키웠다. “제가 양돈을 시작한 1988년은 선두리가 오지였어요.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이었지요. 그런데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관광지가 된 거예요. 괜히 이웃들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성실하고 정직한 그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돼지 냄새가 민폐라고 생각한 그는 결국 20년 생계였던 양돈업을 접는다. 평생 돼지밖에 몰랐던 심 씨. 이제 뭐 해서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불쑥 마을 이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다. “이장이란 직책이 마을 굿은일 도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참에 봉사나 해보자 해서 수락했지요.” 돼지콜레라로 1,238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역경도 겪었지만, 어쨌거나 수십 년간 먹고산 마을이었다. 미추홀구 용현동이 고향인 심 씨의 귀농을 반기고, 묵묵히 지켜봐준 이웃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선택은 옳았다. 그가 이장 일을 시작한 뒤 선두리에선 심·상·점 이름 석 자만 대면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올리는 사람으로 통하게 된 것이다. 한 번 받기도 힘든 인천시 ‘모범시민상’을 두 번이나 받을 정도라니.

네차례의 연임 끝에 지난해 말 이장 직에서 겨우 ‘해방’된 심 씨는 올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중이다. 그의 새 삶을 축복이라도 하듯 엄청난 복이 굴러들어왔다. 검단에 사는 큰딸이 5개월 전 외손녀 이수예 양을 출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인터뷰를 하는 도중 딸과 손녀가 찾아왔다. 답변도 잊은 채, 손녀를 바라보는 그의 입

꼬리가 귀밑까지 올라갔다. 다시 정신을 차린 심 씨가 강화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져 육지로 오가기가 편해졌어요. 공기 좋고 풍경 좋고, 아이들 놀기에도 최고이고 먹고 쉴 곳 많은 곳이 강화입니다.”

강화도 귀촌·귀농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선두리만 해도 주민의 25% 정도가 귀촌인이다. 자신이 꿈꾸었던 귀농·귀촌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민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따금 귀촌하신 분 가운데 측량해서 울타리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섬 안의 고립된 섬을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농촌은 특히 더불어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그렇지만.” 1988년 귀농한 심 씨가 ‘원주민보다 더 원주민 같은’ 마을의 주인이 된 것도 이웃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웃이 잘되고 내 주변이 편안해야 저도 잘 살지 않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법이잖아요. 껄껄.” 행복의 조건은 돈보다는 가족의 건강과 화목, 이웃 간의 화합이라는 심 씨의 말끝에 갑자기 다급함이 묻어나왔다.

“이제 다 끝나스까? 아무튼 강화도에 자주 오시겨.” 인터뷰 내내 손녀가 들어간 현관 쪽으로 힐끔힐끔 시선을 주던 강화 농부가 부리나케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돌담 위에 앉아 털을 날리며 졸고 있던 고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야옹’ 소리를 냈다.



아! 나의 망루 인천

글 조각 김길남 조각가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1985년 첫 번째 조각 개인전을 열었으며,
인천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달빛 25x10x28cm 청동



모티 28x27x62cm 화강석

신흥동 해광사 주변이 어린 시절 나의 주 놀이터였다. 절 언덕을 올라 왼쪽 모퉁이를 돌면 시립도서관이 나오는데, 그 ‘모티(모퉁이의 경상도 방언) 집’이 피란 나와 카메라 한 대와 맞바꾼 첫 번째 우리 집이었다. 그 시절 그곳은 나의 망루와도 같았다. 또래 친구들과 절 마당에서 야구도 하고 폭죽도 터트리고 때론 코피도 터트렸던. 또 아버지의 사진 모델이 되기도 했던 잊히지 않는 그 많은 시간이 멈춰 서 있는, 아! 나의 망루. 손에 잡힐 듯한 앞바다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한 배 한 배 집어 들던 나의 기적 같은 손을 추억한다. 어쩌나 깨끗했던 지 티 없이 맑은 풍광이 눈앞에 선하다. 월미, 팔미, 대부, 영흥, 무의, 영종, 자월, 승봉, 이작, 덕적, 연평... 헤아릴 수 없이 길게 이어진 해안선의 끝자락을 더 멀리 보았다고 견주며 우쭐대던 그때 그 인천 대기의 청명함을 기억한다. 늦은 저녁까지 동네 또래들과 땅따먹기, 팔방, 깡통차기, 구슬빠이(구슬치기), 자치기, 비석치기로 정신 팔다 형에게 붙잡혀 들어오던 우리 동네. 여름이면 창영당 아이스케키 망치 아저씨가 “아이스~끼겨~” 하던 걸걸한 목소리와 동네 구석구석, 때로는 배꼽산, 약사암, 송도산 어디든 소풍 장소가 됐던 날을 추억한다.

중고교 시절을 송의동 집에서 보냈는데 그 2~3년이 우리 가족 간 연대가 좋았던 시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과 누나들을 통해 예술과 삶이 밀접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며 하루를 천년같이 착하고 귀한 막내아들로 보내다가 불현듯 들이닥친 사춘기 기운이 가출로 이어졌고, 독립군이 되어 뜻이 맞는 동지들과 자유공원 모교 후미진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세상 속에 앙데팡당(Indépendant)을 선언했다. 그 시절 우리는 자유라는 히피 문화의 일부인 록 음악, 스트리킹(옷을 입지 않고 달리는 것) 같은 것을 흥내 냈는데, 이 덧없는 시절 친구 없인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며 의리로 뚫뚫 뭉친 공부와 거리가 먼 학생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여자 친구의 배움을 받으며 입대, 전차병으로 3년을 마친 후 귀향하니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신포동 대화재로 검게 그을렸던 가게가 멋진 콘크리트 4층 새 건물이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미대에 진학하고 중매로 결혼도 하고 신혼살림도 차리게 됐다. 옛 신포동은 인천의 명동으로, 새로운 유행의 발표장 같았다.

키네마, 동방극장, 한국산업은행, 양지공사, 화선장, 미락, 대성제과, 빠씨, 할렘, 후생병원, 인천지법원, 미림양장점, 국제경양식, 위스키메리, 방첩대, 인천경찰서, 허바허바사장, 짐다방, 베아프리카, 공보관, 인천시청, 그리고 신포시장 안 내가 제일 좋아하던 백항아리집과 뽕얀 감자탕, 무용담을 뿜내던 미아마찌 아저씨들... 1985년 나는 숙명처럼 인천에서의 첫 번째 조각 개인전을 열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과 장소가 모두 여기 인천에 모여 있다. 대학원 졸업 후 지방대 전임 교수로 일했는데, 2년이 지나니 가족 모두 이사를 권유했다. 그곳은 너무도 낯설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 이것이 군대 이후 두 번째 타향살이 흔적이자, 나를 인천에 꼭 묶어놓는 계기가 됐다. 30대에 가졌던 조각가로서 창작열과 독창적 발상. 그때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60대 중반이 된 지금, 그 시절 나의 예술성을 되찾아가는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모티 42x21x19cm 대리석



모티 33x25x75cm 청동

도시를 보는 10개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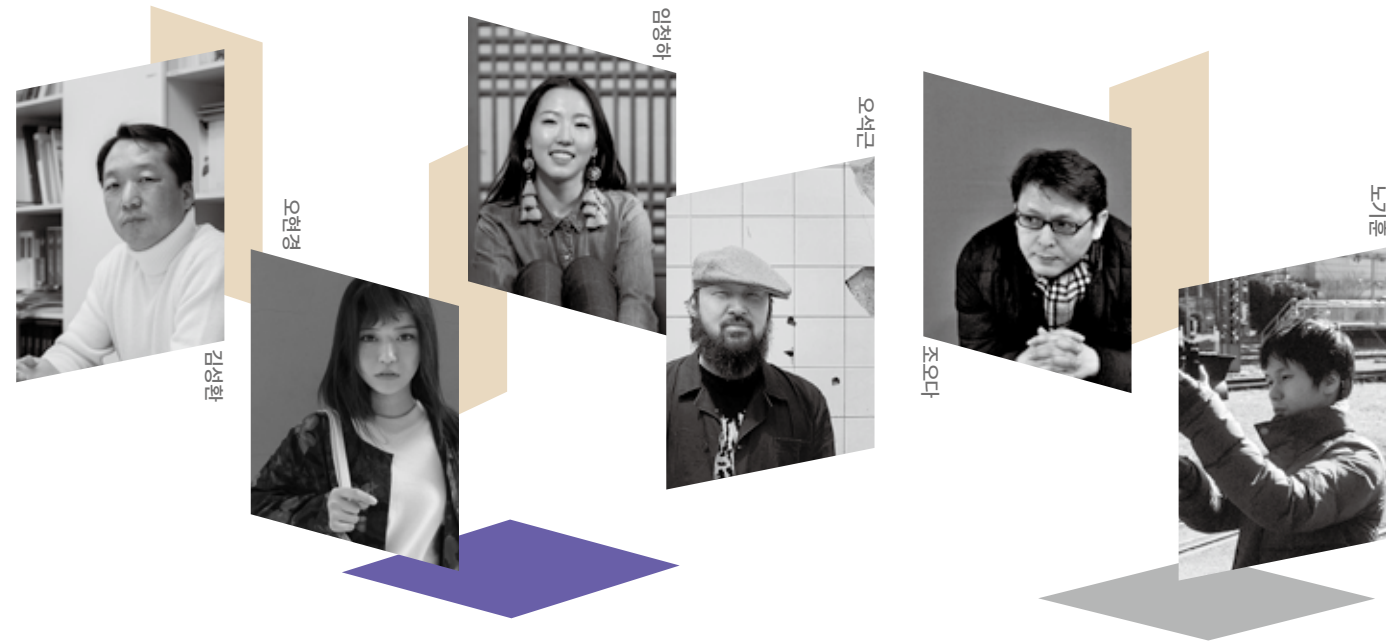
글 박민주 인천도시역사관 학예연구사

역사 전시를 주로 하는 박물관은 재미없다는 느낌이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역사’라는 학문과 ‘유물’이 갖는 이미지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 대신 ‘예술’을 넣고, 유물을 ‘사진 혹은 미술 작품’으로 바꾸면 어떨까? 인천도시역사관에서 2019년 들어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전(이하 ‘작가전’)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

작가전은 인천이라는 도시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열 명의 작가를 선정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일종의 초대전이다. 사진과 미술 분야에서 선정된 열 명의 작가는 이미 수차례의 전시 경험이 있는 기성 작가와 이제 막 지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진 작가로 적절하게 구성했다. 열 명의 작가는 각각 자기만의 시각에서 ‘인천’을 바라보고 작업해 왔고, 그 작업의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한다는 것에서 작가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작가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고 해야 옳다. 당시 인천도시역사관은 과거 작은 전시가 진행됐던 공간을 다목적실 ‘소암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꾸몄다. 그리고 이곳에서 특별전 ‘오래된 가게, 노포’의 두 번째 파트로 ‘인천 노포, 사는 곳을 담다’라는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역사와 유물이 아닌 사진이라는 오브제의 활용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됐고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가 끝난 후 앞으로 소암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66㎡ 남짓한 이 공간에서 기존에 박물관이 해왔던 방식의 전시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시도할 것인지 판단해야만 했다. 작가전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었다. 작가전은 크게 세 가지 목적에서 기획됐다. 우선 300만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 인천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양할 터인데, 작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지 궁금했다.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신진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기획 전시는 많아야 일 년에 두세 차례 개최되는 것이 고작이다. 매달 작가와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하는 작가전은 조금 더 다양한 전시를 보다 자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했던 나에게 작가전은 도전의 시간인면서, 또 다른 세계를 배우는 공부의 시간이 되고 있다. 때마침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을 때 읽고 있던 엄기호의 <공부 공부>라는 책에서 본 문장이 떠오른다.

“공부란 분별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며, “분별의 힘이 있을 때 비로소, … 대상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장처럼 달마다 작가전을 준비하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익혀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인천’이라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예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전

전시 기간 : 2019년 3월~2020년 1월 2일(매월 마지막 수요일 개막)

전시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

전시 기간	작가	주제 및 전시 제목
4월 24일~5월 6일	고제민	기억과 삶을 품은 공간 - 인천
5월 29일~6월 12일	류재형	잊혀져가는 철길, 주인선을 가다
6월 26일~7월 9일	유광식	얼음집이 녹는다
7월 31일~8월 13일	김성환	인천, 국제도시를 꿈꾸다
8월 28일~9월 10일	오현경	나무의 복수
9월 25일~10월 9일	임청하	집의 지표
10월 30일~11월 12일	오석근	인천(仁川)
11월 27일~12월 10일	조오다	겹쳐지는 인천 도시를 증명하다
12월 18일~2020년 1월 2일	노기훈	1호선

작가와의 대화

시간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7~8시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



첫 전시. 김보섭 작가의 ‘시간의 흔적’(인천의 공장 지대)

CULTURE CALENDAR

MAY 2019

05

이달의 展

최정숙 초대 개인전
4월 17일(수)~5월 31일(금)
서담재갤러리

햇살과 바람소리가 함께하는 풍경전
4월 27일(토)~5월 3일(금)
갤러리지오

인천 원로작가전
5월 2일(목)~15일(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나무

제2회 노란잠수함전
5월 3일(금)~9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12회 윤석범 개인전
5월 3일(금)~9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정문희 개인전
5월 10일(금)~1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4회 인천일요사진회 회원전
5월 10일(금)~1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전운영 개인전
5월 10일(금)~1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이은희 개인전
5월 10일(금)~1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37회 인천교원사진연구회사진전
5월 17일(금)~2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봄의 꿈 3색전
5월 18일(토)~30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나무

파스텔과 수채화의 만남
5월 18일(토)~30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다솜

좋은사람들 제2회 보자기전 ‘규방’
5월 24일(금)~3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10회 청관회전
5월 24일(금)~3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02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0분~11시 20분
전석 3만5,000원, 단체 8,000원
☎ 031-633-4864



03

인천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뮤지컬
‘메노포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3일 오후 8시
5월 4일 오후 2시·6시
R석 8만원, S석 6만원
☎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우리 춤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04

어린이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월 4일~5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전석 2만5,000원
☎ 1544-3901

어린이를 위한 가족 뮤지컬
‘욕심쟁이 마님과 바보’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14

07

영상으로 만나는 Sac on Screen
‘인형극 피노키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무료
☎ 032-460-0560

09

다시 읽는 동화, 낭독 연극 시리즈 I
‘괜찮아, 피노키오’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95

10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81회 정기 연주회
2020 베토벤 리커밍1 ‘베토벤 교향곡 제7번’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현(絃)의 앙상블로 노래하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스테이지149 연극선집 I ‘신포동 장미마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월 10일
오후 2시·7시 30분
5월 11일
오후 7시
전석 2만원
☎ 1544-2341



11

남사당놀이와 함께하는 ‘기승전~흥’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14

어린이 인형극
‘으랏차차 순무 가족의 커다란 순무’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오후 4시
전석 1만원
☎ 032-866-3993

14

제14회 인천 사랑의 부부 합창단 정기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무료
☎ 010-3309-2340

15

2019 커피콘서트III
신박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16

인천 YMCA 남성중창단 창단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31-8161

연극 ‘옹고집 이야기’

학산생활문화센터 4층 학산소극장
5월 16일 오후 4시
5월 17일 오후 7시
5월 18일 오후 4시
어린이 5,000원, 성인 1만원,
가족권 2인 1만원(어른 1인+어린이 1인)
☎ 032-866-3393

17

춤추는 도시 인천
동아시아 문화 도시 ‘개막 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무료
☎ 1588-2341

제12회 시민과 함께하는 ‘효 국악 한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30분
초대
☎ 032-881-5067

‘오창현의 매직 콘서트 - He's Coming’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18

화관무와 서도소리의 만남 ‘어울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14

19

오정해와 함께하는 키즈 국악 콘서트 I
‘느닷이 펼치는 사물놀이의 진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4시
전석 7,000원
☎ 032-505-5995

22

제9회 인천여중 음악 중점 학교 정기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032-629-8313

춤추는 도시 인천
동아시아 문화 도시 ‘DanceTeen Festival’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원
☎ 1588-2341

23

인천예고 제22회 정기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032-627-1181

24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판타지아1’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25

관객과 함께하는 ‘한국 대중가요 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14

춤추는 도시 인천
동아시아 문화 도시 ‘영솔로리스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1588-2341

28

부평 CTS 소년소녀합창단 제4회 정기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10-3052-9870

29

마실-드로잉 서커스 코미디
‘크로키키 브라더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무료
☎ 032-460-0560

춤추는 도시 인천
동아시아 문화 도시 ‘IMDT CURATION’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원
☎ 1588-2341

30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 032-899-1517

아트 스트릿 댄스 ‘춤추는 미술관’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95



31

춤추는 도시 인천
동아시아 문화 도시 ‘무·대열전(舞·大熱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1만원
☎ 1588-2341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뮤지컬 하이라이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 상기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월 5일 5가지 방법

어른들에게 어린이날은 그저 쉬는 날. 허나 아이들에겐 특별하다. 달콤한 휴식은 다음날 대체 휴일로 미루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선물 같은 어린이날,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모았다.



선물 하나.

놀GO, 즐기GO, 나누GO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놀GO, 즐기GO, 나누GO’. 가장 어린이 날다운 슬로건 아래, 5월 5일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라 식상할 거란 생각은 금물. 5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내용도 알차다. 군악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인 어린이날 기념식과 두루미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희망·도전·꿈을 주제로 한 부대 행사 역시 다채롭다. 포토 존, 보물찾기, 석고 마임, 아기 돌봄 체험, 어린이 매지컬 공연, VR 체험 등으로 채워진다.

행사명 제15회 어린이 주간 및 제97회 어린이날 행사
일시 5월 5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
문의 아동권리팀 ☎ 032-440-2858

선물 둘.

가족의 사랑과 꿈을 열어 Dream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동구가 들썩인다. 동인천역 북광장에서는 ‘어린이의 꿈의 길을 열어 드림(Dream), 가족 간의 사랑을 이어 드림(Dream), 행복한 시간을 드림(Dream)’을 주제로 제4회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시작은 어린이 치어리더 팝콘과 동구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 공연. 기념식에서는 모범 어린이 표창과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낭독으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알린다. B-boy 공연, 매직&버블 쇼, 애니메이션 퀴즈 쇼, 초대형 에어바운스와 VR 체험, 근대 건축물 종이접기, 물고기 잡기, 슈링클스 체험 등으로 하루가 짧아진다.

행사명 제4회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
일시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문의 동구청 교육아동청소년실 ☎ 032-770-6833

선물 셋.

동물, 버블과 함께 ‘와글와글’

아이를 키우는 인천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가봤을 국립생물자원관. 2019 생명 사랑 어린이 대축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싱그럽고 자연 친화적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즐기는 버블 쇼와 레크리에이션부터 동물 야광 팔찌 만들기, 동물 친구 자석 만들기, 친환경 비눗방울 놀이 등 자연과 생물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 행사 중에는 인천서부경찰서의 미아 방지 사전 지문 등록도 이뤄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안심까지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명 2019 생명 사랑 어린이 대축제
일시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및 잔디·햇빛·씨앗마당 외
문의 국립생물자원관 ☎ 032-590-7000

선물 넷.

우리 함께 도공이 되어볼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닮은 멋진 도예 작품을 빚어보자. 녹청자박물관에서 아름다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적 자연 소재인 흙을 이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보들보들 흙 밟기 체험과 조물조물 흙 놀이 체험, 도자기 페인팅과 물레 체험까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키타리 피에로가 선사하는 미술 풍선 선물과 다양한 히어로 캐릭터들과의 다이내믹한 포토타임은 덤.

행사명 열려라 박물관 신나는 도예 체험
일시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녹청자박물관
문의 녹청자박물관 ☎ 032-560-2932

선물 다섯.

선사시대 체험하러 오세요

인천 바다와 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힐링하고, 아이들에게 점수도 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강화도에서 펼쳐지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기대되는 이유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광장 일원이 맛과 멋, 즐거움으로 일렁인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은 기본, 강화외식업지부와 푸드 트럭이 함께하는 풍성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여기에 군인과 경찰, 소방관 직업 체험 및 해병대 중장비 관람 등 오직 강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벤트가 가득하다.

행사명 강화군 어린이날 기념행사
일시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광장 일원
문의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 032-930-3581



이 밖에도 인천어린이과학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축제 한마당’과 부평구문화재단 개최 ‘부평 키즈 페스티벌’ 등 각 구와 기관에서 준비한 알찬 행사들이 인천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IMAGE

NEWS



철책, 역사의 뒤편길로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 철거 사업 착수
#송도바이오산업교부터 #고잔톨게이트까지
#2.4km 구간 철거

01



평화, 예술이 되다

#냉전의 유산 철책으로 #평화 조형물 건립·전시
주변에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
설치 방안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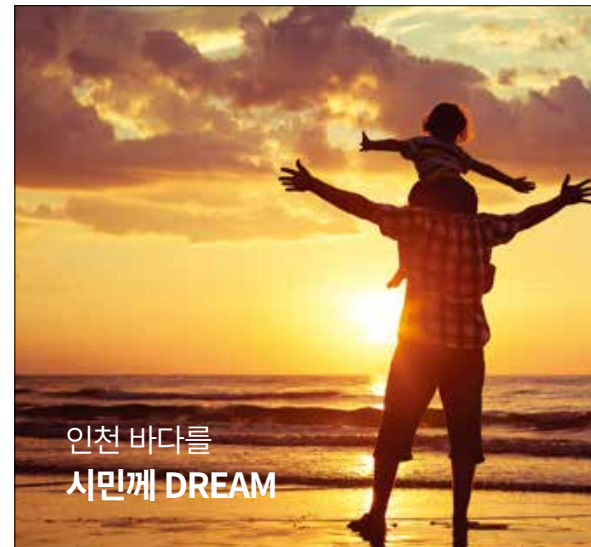
02



시민이
디자인하는
평화

#시민 대상 철책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진행
완성된 조형물 7~8월 중 #남동공단 인근 해안
#친수 공간에 설치

03



인천 바다를
시민께 DREAM

북한 접경 지역으로 #해양 친수 공간이 아쉬웠던 인천.
2020년까지 #49.81km 철책 철거로 #인천 바다를
시민 품으로!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우리 시는 지난달 서구 검단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보급과 복지증진을 위한 ‘검단노인복지관’을 개관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26일 ‘2019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와 모니터단 59명을 위촉했다.

우리 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무료로 해주는 ‘헬프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 요청 시 점검단이 현장에 출동해 안전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 시가 우리 아이 안심 통학로를 만들어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 제로화에 나선다.

우리 시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광장에서 ‘정서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우리 시는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국내 크루즈터미널 가운데 가장 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지난달 문을 열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세계 최대 규모의 22만5,000톤급 크루즈까지 입항이 가능하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NEWS

BRIEF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닻 올려



국내 크루즈터미널 가운데 가장 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지난 4월 26일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장한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연면적 7,364m², 안벽 길이 430m로, 9,000명 이상 탑승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22만5,000톤급 크루즈까지 입항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롯데관광 등 6개 기관 각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식도 가졌다. 또 터미널 개장을 기념해 11만 4,000톤급인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세레나호’가 승객 2,800명을 태우고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 등을 향해 출항했다. 시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하기 위한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 축제도 진행됐다.

시 해양항만과 032-440-4848

인천대공원, 축구장 4배 규모 유아숲 체험원 개장

우리 시는 8,000만원을 들여 인천대공원 자전거 광장 옆에 두 번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 이달 안에 개장할 계획이다. 3만m² 규모의 유아숲 체험원은 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새콤달콤 숲,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모락모락 숲, 나무 위 집과 밧줄 놀이가 있는 흔들흔들 숲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52

“미니 태양광 설치하세요.” 400가구 지원

우리 시는 올해 400여 가구에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소유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설치비 90만~180만원 중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4억2,000만원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비를 선착순 지원한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에 부착하는 방식과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사를 해도 쉽게 해체와 설치가 가능해 일반 가전제품같이 사용할 수 있다. 300W 용량의 미니 태양광 시설은 월평균 33kWh의 전기를 생산, 약 7,000~1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2



© 사진 류정현

어업용 기자재 무상 점검·부품 교체 서비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 4월 8일부터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를 운영한다. 센터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어촌을 직접 찾아가 어선과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 점검하고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부품 교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강화군 서도면을 시작으로 26개 어촌계 어선 700척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과 부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5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부평에 유치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공모, 전국 5개 광역시·도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선정됐다.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부평구 갈산역 인근 부평테크시티 건물 9~1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는 입주실 30개, 회의실 3개, 오픈 스튜디오, 근로자 쉼터 등이 마련된다. 센터 구축비와 초기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국비 48억원과 지방비 51억원 등 총 9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육성센터는 100억 규모의 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2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출동 ‘헬프미’ 서비스 시행

우리 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무료로 해주는 ‘헬프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대한건축사협회 등 9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400명 규모의 헬프미 점검단을 구성하고 시민 요청 시 현장에 출동해 안전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단은 주로 건축물·옹벽·측대·급경사지 안전점검, 가스·전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체육관 등 공공시설물 중 민간위탁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단 1·2·3종 법적 점검대상 시설과 민원·소송이 걸린 공사장 피해 분쟁 현장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재난대응과 032-440-1859

인천 전기버스 운행…2022년까지 120대 확대

인천시 친환경 전기버스가 지난 4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서구 가좌동 차고지에서 남동중학교까지 운행하는 721번 시내버스 노선에 전기버스 10대를 우선 배치했다. 이번에 투입된 전기버스는 1회 충전 후 공인 주행 거리가 178.2km인 44인승 대형 버스다. 전기모터 구동 방식으로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배출 가스가 전혀 없고 소음이 적어 더욱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어르신 문화공간 ‘검단노인복지관’ 개관

우리 시는 지난 4월 10일 서구 검단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보급과 복지증진을 위한 ‘검단노인복지관’을 개관했다. 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2,674.23m², 지상 4층 규모로,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탁구실, 바둑장기실, 대강당, 식당,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5월부터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시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을 포함해 총 2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강화군 노인문화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3

송도국제도시 반려견 실외놀이터 문 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29일 송도국제도시 1공구 달빛공원에 ‘송도 도그파크(반려견 실외놀이터)’를 개장했다. 송도 반려견 실외놀이터는 총 5,500m² 넓이로,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따로 입장할 수 있도록 3개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과 견주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입장할 수 없다. 또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255



청라호수공원 레이크 하우스 시설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25일 청라지구 랜드마크인 청라호수공원 내 레이크 하우스의 일부 시설을 개방했다. 이날 오픈된 곳은 1·2층 전망데크 등 일부 시설이다. 본격 운영은 이달 초 수상레저 및 카페테리아 등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 6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레이크 하우스 1층은 수상택시, 카누카약 등 수상레저를 이용할 수 있는 매표소와 대합실, 2층에는 청라호수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카페테리아가 입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693

청라 의료복합타운, 정부 심의 통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의료복합타운 예정지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복합타운 예정지는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 2블록 26만1,635㎡로, 이번에 산업시설용지 18만2,298㎡와 지원시설용지 7만9,338㎡로 개발계획이 정해졌다.

경제청은 이번 경자위 심의·의결을 토대로 청라 의료복합타운을 의료 및 교육 등 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과 의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집적시키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성을 고려,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의료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와 같은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615

악취를 잡아라…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추진

우리 시는 서구 가좌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악취 발생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가좌 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와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해 처리 효율이 낮았고, 지역주민들이 하수·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752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과 하수·분뇨 처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분뇨처리시설 처리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고농도계열 바이오 필터 등 탈취 설비와 덮개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하수과 032-440-3644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7월 시행…1인 4만원 지원

우리 시는 지난 4월 24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시교육청, 인천시 치과의사회, 카이아이컴퍼니와 ‘아동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의를 연계하고, 구강 건강관리 비용을 1인당 4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치과 의료기관 선정,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1594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이달부터 시행

우리 시는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 4개 유형이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8만원, 나머지는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 교통관리과 032-440-3902

‘우리 아이 안심 통학로’ 조성

우리 시가 우리 아이 안심 통학로를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해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학원 등 실제 어린이가 자주 이동하는 공간의 안전을 강화한다. 시는 우리 아이 안심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군·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학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우아로 TF’를 구성한다. 특히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의 보행 특성을 반영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확대한다. 이밖에 대각선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시설, 보행자 울타리, 횡단보도 투광기 등을 설치한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66

취업 도전 청년에게 교육비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우리 시는 취업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 2년이 지난 만 19~39세,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은 누구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등 유사 구직활동사업 참여자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21일까지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250여 명을 선정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족…노인 사기 피해 감시

우리 시는 지난 4월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와 모니터단 59명을 위촉했다.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각 관할 지역 경로당을 돌며 최근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 및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기관과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와 불법다단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03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사용 자격 완화

우리 시는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중 봉안담(회랑형) 2,000기를 5월부터 사용 자격을 단계별로 완화(한시)할 계획이다. 사용 자격 완화는 지역 내 이장하는 유골, 지역 밖 거주 사망자 중 인천시민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지역 밖 거주 사망자 유골로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천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봉안담 사용이 가능하다.

봉안담은 2017년 개장해 외국인 봉안담과 부부형 봉안담 등 특화 봉안담, 회랑형 봉안담 등 3개의 봉안담이 운영되고 있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2

경인아라뱃길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우리 시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광장에서 ‘정서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인천시 농업인 33명이 운영하는 장터는 인천에서 생산된 과일·채소와 강화인삼·새우젓 등 농수산 특산물을 시장 가격보다 10~20% 싸게 판다. 정서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2012년 개장해 올해 8년째 운영되는 인천의 대표 주말 정례 장터로, 작년에는 75차례 장터에서 3억 6,8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팔려 정부로부터 1,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7

COUNCIL
NEWS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10일 인천로얄호텔에서 ‘2019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용범 의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2019년 시의회 의정 활동 계획 보고, 의정 활동 자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 자문을 위해 아트센터 인천, 제물포구락부, 역사자료관 등 주요 역사문화시설에 대한 시정 견학도 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시민단체·학계 및 기업대표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정책자료 제공 및 대안 개발, 의정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인천평화도시 기반조성 방향과 과제’ 정책강연

인천시의회 인천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개발 연구회는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연구원 김수한 박사를 초청해 인천평화도시 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한반도 최접경지인 한강하구 인천권역에서의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평화도시로 인천이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다방면의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경제위, 서해 최북단 주요 현안 업무시설 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의원 업무연찬회의 일환으로 웅진군 백령도 및 대청도의 산업경제위 소관 주요 현안 업무시설을 방문했다. 연찬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백령면을 방문해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백령면 연화리에 소재한 상수도 식수댐 현장을 방문해 담수화 시설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장 환경오염에 따른 대체 시설 마련, 지원 방안 검토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지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질공원 지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고교 무상교복 납품 관련 진상조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 조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돼야 하는 무상교복이 중고품이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소위원회 위원 전원과 함께 인천시 교육청 교육국장과 학교생활교육과장,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원회는 5월 3일 2차 회의를 열고 지역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에 따뜻한 성금 전달

인천시의회가 지난 4월 17일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251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시의원은 물론이고 의회 구성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어촌발전’ 어업인 간담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어촌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과 인천시 균형발전정부부시장을 비롯한 수산 관련 부서장, 수협조합장, 어업인단체장, 어촌계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어촌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남북합의로 어장 확대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오히려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 요구와 어항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등 최근 이슈 내용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 실익 방안 토론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애 박사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함께했으며,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검단·오류지역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간담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오류지구 내에 위치한 단봉초등학교에서 ‘검단·오류지역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류지구 내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방안과 검단·오류지역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해결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구를 지역의 신동근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장 등 교육위원 5명이 참석했고, 단봉·왕길·금곡초등학교장을 비롯해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등이 참석해 학부모듈과 소통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7~8 ㉠www.icouncil.go.kr

인천을 그리다
Drawing & Memories

300만 인천 시민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무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려주세요.

높다란 비탈길, 골목 구석구석 피어난 동심

1883년 개항. 파란색 눈동자의 낯선 이들이 인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송월동은 당시 그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습니다. 세월 흘러 마을은 나이를 먹어 노후화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빈집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송월동의 변신은 2013년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화를 테마로 마을에 새 옷을 입혔습니다.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곳곳에 조형 물을 세웠습니다. 낡은 주택은 카페가 되고 음식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송월동 동화마을은 옆집 차이나타운과 함께 볼거리와 먹거리 넉넉한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4월호 드로잉 인천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김지현 연수구 비류대로



김광철 남동구 운연천로



남민석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정초영 미추홀구 인하로



정윤아 연수구 새말로



일러스트 박성경 작가

송월동 동화마을
중구 자유공원서로37번길 22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미디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19년 5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불편하시면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기간 : 5월 17일까지
공모 주제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 과제(복수 공모 가능)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 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재난 관련 규제 강화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 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 애로

공모 방법 : ㉢ gee84@korea.kr 또는 우편 제출
문의 : 시 법무담당관실 ㉠ 032-440-1632



02 우리 동네 ‘소확행’ 아이디어 제안하세요

시민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실현하고자, 시민이 쉽게 공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공모 주제 : 무엇을 할까, 무엇을 바꿀까, 기타 시민 행복 시책 발굴
공모 분야 :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제안,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방안, 생활 속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방안, 배달 음식 1회용 포장 폐기물 저감 방안, 인천e음 활성화 방안, 도시 숲 확보 방안 등
공모 기간 : 5월 14일까지
공모 대상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공무원 제외)
접수 방법 : ㉡ www.incheon.go.kr 또는 ㉢ sunhee@korea.kr (방문, 우편, 팩스 가능)
문의 : 시 혁신담당관실 ㉠ 032-440-1652

03 당신도 파워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 1인 방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추진 관련, 1인 미디어 분야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모집합니다.

기간 : 1·2기로 나누어 진행(주 5일, 오전 9시~오후 1시, 총 180시간)
* 1기(30명) : 6월 10일~8월 20일
* 2기(30명) : 9월 2일~11월 8일
대상 : 인천 거주 만 17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모집 : 5월 2일 오전 9시~24일 오후 4시
신청 : ㉡ www.ibitp.or.kr(지원 사업 게시판 내 공고문 참조 필수)
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032-260-0655

04 도란도란 박물관 어린이 공방 – 교통편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 속 놀이터 ‘도란도란 박물관 어린이 공방 – 교통편’을 운영합니다.

일시 : 5월 25일 오전 10시~낮 12시(6세~초등학교 2학년), 오후 2시~4시(초등학교 3학년~6학년)
주제 : ‘교통’을 주제로 도시 인천을 알아보고, 교통수단 이미지를 활용한 슈링클스 열쇠고리 및 에코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3층 소강의실
대상 : 각 2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 icmuseum.incheon.go.kr(선착순)
신청 기간 : 5월 20일 오전 9시~23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16



05 제24회 환경의 날 다채로운 행사 마련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환경의 날 기념식이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개최됩니다.

일시 : 5월 31일 오후 2시 30분~6시
장소 : 선학체육관 특설 무대
주최 : 인천광역시·인천환경공단·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용 : 기념식, 승기천 환경 정화, 부대 행사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환경 퀴즈, 환경 보호 퍼포먼스 대회, 체험 부스, 나눔 장터 등)
* 학생 자원 봉사 활동 2시간 인정
문의 : 시 환경정책과 ㉠ 032-440-3513

06 인천 역사를 기록할 객원 기사를 찾습니다

인천시 공식 인터넷 신문 ‘i-View’에서 객원 기사를 모집합니다. 인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인천 곳곳을 누비게 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기간 : 5월 12일까지
모집 인원 : 000명
지원 자격 :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취재와 사진·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분
선발 방법 : 서류 심사 및 면담 후 개별 통보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 지원서 양식 ㉡ www.incheon.go.kr/index.do 참조
활동 혜택 : 취재 활동에 필요한 기자 명함 지급 / 채택된 기사에 대해 원고료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서 다운로드 후 ㉢ yona@korea.kr 송부
문의 : 시 미디어담당관실 ㉠ 032-440-8302

07 로봇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경험하세요

인천로봇타워에서 ‘Creating a Dream(꿈 만들기)’을 주제로 제1회 청소년 4차 산업혁명 메이커스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일시 : 6월 22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장소 : 인천로봇타워 다목적실 및 야외 광장
대상 :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지역 주민 5,000여 명
내용 : 드론 축구, 코딩 드론, 메이커톤, 가족 창의력, 3D프린팅 대회 및 체험 부스 운영
신청 : ㉢ gangnam5928@nate.com
신청 기간 : 5월 25일까지
문의 : 서구청소년수련관 ㉠ 032-577-7979



08 당신도 전문상담사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심리상담연구원에서 자기 개발과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무료 강좌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

심리상담사,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아동심리상담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음악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인성지도사, 진로적성상담사, 리더십지도사, 위기심리상담사, 초등영어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심리분석상담사, 부모교육지도사, 방과후지도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신청 : ☎ www.kpedu.kr
문의 : 한국심리상담연구원 ☎ 010-5315-2536

09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 공모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인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 : 5월 8일~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접수 방법 :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
접수 장소
* 방문 : 중구 신포로15번길 76 한국근대문학관 사무동 2층
* 우편 : 중구 신포로15번길 64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문의 :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유망 예술가 활동 지원 ☎ 032-773-3813
* 중진 예술가 활동 지원 및 원로 예술인 지원 ☎ 032-773-3815



10 비디오 콘테스트 ‘브이로그(VLOG)’ 영상 공모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이 제작하는 제3회 IFEZ 비디오 콘테스트 브이로그(VLOG)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간 : 5월 24일까지
대상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내용 :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 제작
접수 : IFEZ 블로그(blog.naver.com/ifezsns)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032-453-7084

11 연극 ‘미추홀 운전사’ 시민 배우를 찾습니다

학산시민극단에서 연극 ‘미추홀 운전사’에 참여할 시민 배우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 5월 15일까지
내용 : 연극 교육 및 ‘미추홀 운전사’ 재창작, 공연 활동
일시 : 5월 15일부터 매주 오후 2~4시
대상 : 미추홀구 주민이면 누구나
문의 : 학산시민극단 ☎ 032-866-3993

12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신청하세요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진정을 받습니다.
진정 기간 : 2020년 9월까지
진정 대상 : 1948년 11월 30일~2018년 9월 13일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고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 ☎ 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접수 방법 : ㉠ truth2018@korea.kr ㉡ 02-6124-7539,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방문)
상담 및 문의 :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 02-6124-7531~2 ☎ www.truth2018.kr

BOOK INFO

까치발로 본 인천



194쪽, 비매품
펴낸 곳
시 미디어담당관실

살짝 까치발만 들어도 달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들. 좀 더 높은 시선에서 인천을 바라보고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부 ‘까치발로 본 인천’에서는 시민을 대신해 까치발을 들어 낮은 시선에 감춰진 인천을 ‘까봤다’. 2부는 ‘드론 찰칵, 하늘에서 본 인천’으로 꾸며졌다. 인천 하늘을 자유로이 비행하며 비탈진 산동네와 꼬부랑 골목길, 부도와 포구 등 원도심을 굽어보고, 송도와 청라 등 새 땅에 솟은 높은 빌딩 사이를 누볐다. 그렇게 시작된 비행은 문학산과 계양산 등 인천의 울퉁불퉁한 근육을 거쳐 아라뱃길 위를 휘돌아 시민에게 착륙했다.



차이나 인천

186쪽, 비매품
펴낸 곳
시 미디어담당관실

가까이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차이나타운’을 조명했다. 인천의 역사 복원과 도시 재생,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름 안에서 찾았다. ‘차’별성, ‘이’야기, ‘나’의 삶, ‘타’인과의 공존, ‘운’명 비전. 다섯 가지 주제로 차이나타운이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끄집어냈다. 또한 숫자로 보는 차이나타운, 시간대별로 차이나타운을 즐기는 All Around China 등 다채로운 정보와 흥미로운 볼거리를 함께 엮었다.

문의 : 시 미디어담당관실 ☎ 032-440-8302

‘인천서점’이 추천하는 인천 冊[책]



혼자인 걸 못 견디죠



지은이 이기인
126쪽 9,000원
펴낸 곳 작은숲

젖은 운동장을 돌아다니는 바퀴
바퀴자국을 물어보며 돌아다니는 바퀴
한 줄만 쓰다 멈춘 자전거가 흘리는 저녁
오늘은 당신에게 거울과 공책을 빌려준다
머리를 씻겨주던 빗물은 철봉을 구부린다
운동장보다 큰 미안^{ㅅㅅ}이 거꾸로 떨어진다
한 방울 눈시울을 이어주는 모두
빈손으로 읊기는 빗소리

시인은 1967년 인천에서 태어나 200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ㅎ방직공장의 소녀들>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시집 <알쏭달쏭 소녀백과사전>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인천 학익동 공장지대와 그곳에서 일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두 번째 시집 <어깨 위로 떨어지는 편지>는 첫 번째 시집에서 보여준 그의 시적 경향의 대상과 폭을 넓혔다. 2019년 1월, 이기인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 출판됐다. ‘탈지면 눈썹’ ‘앵무’ ‘기이하게 날아온 빛’ 등 60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이번 시집은 ‘낮선 이미지와 정밀한 언어가 어우러진 시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삶을 정면으로 응시한 채 그만의 언어로 세밀하게 써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시인만의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다.

인천서점 :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동 1층(인천아트플랫폼)
㉠ incheon-librairie@naver.com

한국 영화 상영 100주년과 인천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햇살의 조각이 물비늘로 떠다니는 코발트블루의 지중해, 매끈한 보트에서 펼쳐지는 와인 파티, 레드 카펫 위에서 별빛을 발광하는 세기적 배우들. 해마다 5월이면 프랑스 칸(Cannes)의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비현실적인 풍광과 세계 영화의 향연을 오감으로 흡수한 뒤 매년 5월이면 앓는 ‘칸느 열병’이다. 외국어도 미숙하고 영화도 잘 모르면서 겁도 없이 칸 국제영화제 취재에 나선 때는 2003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가면 어떻게 되겠지. 가슴에 잔뜩 바람을 넣은 채 프랑스 칸으로 향했다. 14시간 넘어 도착한 프랑스 남부의 작은 휴양 도시, 칸의 검푸른 밤하늘에 빛나던 무수한 별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칸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를 찾아갔다.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인천에서 왔다”고 더듬더듬 말하자 담당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임을 알고 있다”며 선뜻 상급 프레스카드를 내줬다. 초행 취재진에겐 낮은 등급의 프레스카드를 내주는 것이 칸의 관행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 브랜드로 취재 기간 내내 상급 프레스카드를 금메달처럼 목에 걸고 편안하게 영화를 보는 행운을 누릴 줄이야.

칸 국제영화제는 영화를 처음 발명한 뤼미에르 형제의 조국인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거대한 영화시장이다. ‘열차의 도착’이란 최초의 영화가 1895년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상영될 때 인천에선 ‘애관극장’이 개관했다. ‘협률사’란 이름으로 문을 연 애관극장은 처음 남사당패의 땅재주, 줄타기 같은 공연장으로 출발했다. ‘축항사’란 이름을 거쳐 애관극장으로 탄생한 시기는 1926년이다. 앞서 1909년 인천 중구에 ‘표관’이란 종합문화시설이 있었다. 797개의 객석을 갖고 있던 표관 역시 극단·악단의 공연장이었으나 나중에 영화관으로 바뀌었다. 표관은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졌으며 그 자리엔 ‘키네마극장’이 들어섰다가 1974년 은행 건물

이 신축됐다. 키네마와 애관을 비롯해 인천엔 동방, 인현, 중앙과 같은 개봉관과 장안, 세계, 자유, 현대, 미림, 오성, 피카디리 같은 동시상영관이 있었다. 부평 지역에도 부평, 대한, 금성, 백마, 계산, 효성 등 10여 개의 크고 작은 극장이 시민들에게 한두 시간일지라도 고단한 삶을 위무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선물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상영은 1919년 10월 27일 서울 단성사의 ‘의리적 구토’로 기록돼 있다. 올해, 한국 영화 상영 100주년이 되는 셈이다. 서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영화관의 대명사였던 단성사는 2012년 영사기를 멈췄다. 그렇지만 125년 된 애관극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관객들을 맞아주고 있다. 오랜 가족이 곁에 있는 것처럼, 대자본의 멀티플렉스 틈바구니에서 존재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인지.

영화 ‘극한직업’처럼 인천이 로케이션 촬영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애관극장 같은 근현대 문화유산이 준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천영상위원회가 지원한 촬영 건수가 2013년 78건에서 지난해 138건으로 2배 가까이 는 것만 봐도 영화인들의 인천 선호도는 충분히 증명된다. 하늘(공항)과 바다(항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인천이란 도시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영상 인프라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서울과 가깝다는 것도 상당히 유혹적이라고 영화인들은 입을 모은다.

인천은 지금 영상 제작자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 중이다. 개항장의 근대 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오래된 것을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에 뛰어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재생을 통해 인천은 더 살기 편하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한국 영화 상영 100주년, 인천은 지금 최고의 영상 도시로 나아가는 중이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매월 회사로 배송되는 <굿모닝인천>을 빠짐없이 챙겨 보는 열혈 독자. 그중 유독 눈이 가는 지면이 ‘인천 사진관’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시민을 섬기고 있는 딸이, 이번엔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특별한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 속, 자식 키우느라 파인 주름살이 더 깊어지기 전에 번듯한 가족사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사진에 담길 식구들이 늘어났을 때쯤, 더 크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드리겠다고.

오용하(35) 독자님(뒷줄 왼쪽에서 첫 번째) 가족

이달의 사진은 ‘월드칼라사진관’에서 찍어주셨습니다.

홍인표(71) 사진사는 흑백 사진으로 시작해 컬러 사진 현상소에서 20년간 일하고 퇴직한 후, 월드칼라사진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에 각인됐던 1988년이었습니다. 시작의 꿈과 포부는 아속한 세월에 희미해졌지만,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나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사진관의 문을 엽니다. 위치 부평구 청중로 69 문의 032-527-1892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